

● 전기협회, 2011년도 업무계획

- '전기의 날 기념식' 성공적 개최, 표준품셈 3단계 사업 추진
- KEPIC 국제화 추진, 기술기준 4단계 사업 수행, 유능한 전기기술자 양성 등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쌍수)는 지난달 부서별 신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전기협회는 올 해에도 우리나라 전기기술의 발전 도모와 함께 전기설비기준의 국제화, 전기지식 보급, 인력양성 등 '전기산업 진흥'이라는 미션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기의 날 기념식



전기부문 표준품셈 심사위원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샵



KEPIC-week

기획홍보처

기획홍보처는 협회 위상 제고를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오는 4월 8일 개최 예정인 '전기의 날 기념식'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회원관리 업무, 이사회, 정기총회(2월 예정) 등 각종 회의와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계에 배포되는 '전기저널(월간)'을 전문 Magazine으로 도약시키는 등 시스템 강화를 위한 홍보기능을 더욱 활성화 하는 한편, 장학 사업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장학금 지급(23명, 91,000천원)을 예정하고 있다.

KEPIC처

KEPIC처는 'Advanced Standard&Global Partner' 라는 'Vision 2020'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knowledge leading ▲expertise higher ▲partnership extended ▲industry wide ▲cost profitable로 표현되는 'KEPIC by kepic'이라는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5대 추진목표로 KEPIC의 고유성·전문성·국제화·적용성·경제성을 설정, 'KEPIC의 국제화'란 최종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서겠다는 각오를 신년계획에 담고 있다.

중점과제로 ▲친환경/신기술 표준개발 ▲기술선진화 촉진 ▲국제 표준기관 협력증진 ▲국제표준화 역량강화 ▲R&D 연계기능 활성화 등을 설정, 사용자 만족도 실현에 집중함으로써 'KEPIC의 글로벌화'란 최종목표에 근접하는 'Quantum Jump'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 밖에 원자력국제표준화 기반구축에 따른 국제표준 제안, 한중일 원자력국제표준 협력사업, KEPIC 교육사업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한다.

기술기준처

기술기준처의 2011년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전기설비기술기준 선진화 및 협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기술기준처는 4단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운영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TRM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기준 관련 제·개정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설비기술기준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전문기관 협의체 구성 ▲워크샵·세미나 개최 ▲교육·출판사업 강화 등을 통해 전기관련 산업의 효율화와 공공의 전기안전 확보 기여도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술기준처는 지난해 종료된 3단계 사업을 통해 IEC 전선표준 반영 및 공통접지방식 판단기준 적용과 지능형 전력망 판단기준을 신설하는 등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충실히 수행한 바 있다.

전력기술교육원

1995년 개원 이래 고급 전기기능 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협회 부설 전력기술교육원은 신 장비 도입, 강사진 보강 등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육훈련의 경쟁력 강화와 훈련원생들의 업무능력을 한층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총 16개 과정으로 확대된 교육과정을 통해 원활한 전력기능인력 수급에 한층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배전기능인력의 자격평가와 통합적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숙련된 기능인력의 적기확보에도 역량을 발휘할 예정이다.

전기협회, 시무식 갖고 새해 ‘힘찬 출발’ 다짐

신묘년 새해를 맞아 전기협회가 2011년 새해 시무식을 개최했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쌍수)는 지난달 3일 중구 수표동에 위치한 전기회관 4층 회의실에서 박천진 상근부회장, 오재형 전무이사 등 협회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하고, 희망찬 한해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박천진 상근부회장은 신년사에서 2011년 주요 당면과제인 ▲전기 날 행사 ▲기술기준 4단계 사업 ▲KEPIC 6단계 사업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준비와 추진을 강조했다. 이어, “변화와 창조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협회를 위해 도전적인 자세와 창의적인 업무역량 발휘”를 당부했다.

한편, 시무식에 이어 이연성 홍보팀장(2직급)을 비롯한 승격자 및 보직이동자 등 인사발령자에 대한 사령장이 수여됐다.

전기협회, 전기저널 편수위원회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24일 중구 수표동에 위치한 전기협회 회의실에서 '193차 전기저널 편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재형 위원장(대한전기협회 전무이사)을 비롯한 9명의 편수위원들이 참석하여, 2011년도 3, 4월호 스페셜 이슈와 3월호 특집과제 등을 심의, 선정했다.



한편, 2011년 첫 편수위원회를 맞아 ▲노선만(남동발전 발전운영팀장) ▲박범수(한수원 기업홍보팀장) ▲오창수(한전 송변전기기기팀장) ▲임청원(한전 홍보기획팀장) 등 4명이 신임 편수위원으로 위촉됐다.